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온 교회가 평안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소명을 늘 기억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을 한 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생소한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뻐 하시는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복된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 하신 달란트와 지혜를 사용 하시기 위하여 이 곳에 부르신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참고 사랑 하시어서 맡겨진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 보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부르신 것을 깨닫고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속한 기관은 아직 복음이 전해 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현지인이 마음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현지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사역은 모두 다르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역들이 모여져서 성경이 없는 암흑과 같은 이 땅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약 120여년 전에 한글로 된 성경이 저희 조선 땅에 들어 온 것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서 마침내 저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된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곳에서 감당하는 사역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와 또한 몸된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담장이 굳게 둘러쳐 있고, 무장한 경비가 24시간동안 지키고 있는 제가 사역하는 이 곳을 벗어나면 눈에 띄는 사물과 풍기는 냄새와 들려지는 소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 집니다. 오래 전의 풍요를 엿 볼 수 있는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난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전세계에서 관료의 청렴도가 최 하위권에 있는 이 나라의 현 주소를 실감 나게 보여주는 산 현장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카톨릭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종교가 모든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먼 변질된 삶의 흔적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우세한 이 곳 모슬렘도 그저 종교가 다른 부류로 단순하게 묘사 하기에는 그 영향이 너무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고 힘이 없는 기독교는 소수의 무리들이 믿음의 전통을 어렵게 이어 오는 정도인 것 같아서 이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저려 옵니다. 이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 계심’을, ‘성령의 역사 하심’을, 또한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축복’을 저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 할 정도 입니다.

저희가 속한 기관을 통하여 광대한 Vision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 하면서도 또한 눈 앞에 보이는 밝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이곳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미약하고 보잘 것 없을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곳에서 이들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 곳까지 부르신 뜻을 온전히 다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꿈에 부푼 **‘이 년차 사역’** 을 준비하면서 이 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더 간절히 느끼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맡겨주신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 1:9)

이 년차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1. 성령 충만을 위하여

- 제 의지나 노력인 아닌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도록

2. IT 사역

- 지혜가 충만하도록
-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하나가 되도록
- 담당하는 Computer System이 잘 운용되도록

3. Local 사역

-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섬기도록
-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4. 기도 후원자

- 기도의 동역자가 채워 지도록
- 후원금이 채워지도록

5. 현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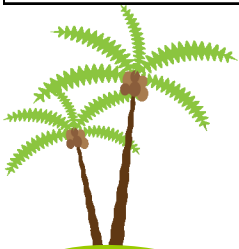
- 차량 구입을 위하여
- 현지 언어를 빨리 습득하도록
-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6. 자녀

-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해 지도록
- 학업과 진학을 위하여
-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우리 주님과 온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파송이 교회에 덕이 되고 또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하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